

지니스, 전주 과학산업단지로 이전

바이오 벤처기업 지니스(대표 김현진)가 본사를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이전했다.

지니스는 사업 확장에 따라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3300평방미터 부지에 연건평 500평모의 2층 사옥을 마련했는데 BDRD 중앙연구소에는 HPLC, GC 등 최첨단 분석장비와 Fermentor 세포배양 설비 등 150여종의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어 신규 바이오 소재 탐색 및 구조결정 연구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200평의 클린룸 공조설비를 마련해 GMP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의약품 및 원재료 양산이 가능해졌다.

김현진 대표는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항암 물질과 항진균 물질의 기전연구를 완료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며, 항암물질과 항비만 물질은 신규 원천소재로서 특허출원 및 임상자료가 추가되면 기술이전시 최소 10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니스가 자체 발굴해 세계 최초로 사업화에 성공한 콜레스테롤 저하제 원천기술은 이미 선진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해 2008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진국 역수출로 알려진 지니스 오메가3 및 Cardio-Choice, Celloman, CLS 등 기존 제품의 매출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1/16>